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Individual and Parental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경님**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Professor : Lee, Kyung-N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fferent individual and parental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For an analysis, perceived competence, intrinsic locus of control were included in individual variables. For parental variables, parental support and achievement pressure and marital conflict were examined. The sample consisted of 561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frequency, percentage,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Several major results were found from the analysis. First, girl's achievement motivation was higher than boy's. No age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fifth and sixth grade. Second, boy's and girl's achievement motiva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competence, intrinsic locus of control, parental support and achievement pressure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al marital conflict. Third, important variables predicting boy's and girl's achievement motivation were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perceived social competence. Important variables predicting boy's individual and social oriented achievement motivation were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n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On the other hand, important variables predicting girl's individual oriented achievement motivation were perceived social competence,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intrinsic locus of control an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Important variables predicting girl's social oriented achievement motivation were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nd mother's support.

△주요어(Key Words) :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 내재적통제소재(intrinsic locus of control), 부모지지 및 성취지향(parental support and achievement pressure),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I. 서론

오늘날과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신에 대한 신뢰, 책임감, 그리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발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행동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성취동기는 과제해결능력, 학업성취는 물론 나아가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

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Fyans et al, 1983). 성취동기가 높은 개인들은 자신감과 적절한 모험심을 가지며, 과제 지향적이고 새로운 일을 좋아하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높은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높은 성취만족을 기대하는 행동을 보인다(McClelland, 1963). 반면 성취동기가 낮은 개인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일을 선호하고 성공에 대한 희망보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회피가 더 크다(Mehrabian, 1969). 이처럼 성취동기는 개인의 성공적인 성취와 바람직한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성취동기는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높은 성취기준을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공모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이경님 (E-mail : knlee@dau.ac.kr)

충족시키려는 자발적 의지로 정의된다(Shaffer, 1999: 449). 지금까지의 성취동기에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여 보면 많은 연구들은 성취동기의 개인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40여년 동안 성취동기 관련 연구를 한 McClelland의 성취동기 이론(McClelland, 1961)에 의하면 각 개인은 나름대로의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취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 개인의 욕구, 기대 수준, 성취목표, 개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 등 성취동기의 개인적 요소가 중요시 되고 있다. 기존의 개인주의적 가정에 기초한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강조하여 서양문화권의 성취동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 및 관계적인 요소 등이 강조되는 동양문화권의 사회 집단주의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제한점이 지적되고 있어(Markees & Kitayama, 1991) 최근 개인이 속하는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지향 성취동기의 대안적 이론 모형(Yu & Yang, 1994)이 제시되고 있다(김의철·박영신, 1999). 이러한 사회지향 성취동기는 성취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회의 집단 선, 사회적 의무, 사회적인 조화 등 사회 집단주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성취행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박영신·김의철, 2003; 정갑순, 2002).

국내에서도 아동의 성취동기와 가정환경 및 아동 특성 등 다양한 변인과의 관련에 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성취행동의 개인주의적 가정에 기초한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치우쳐 있었으며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에서의 문화적이고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므로 한국아동의 성취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지향 성취동기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포함한 성취동기와 관련변인과의 관계연구가 절실하다고 본다.

아동의 성취동기는 영아기의 환경에 대한 지배동기(mastery motive)에서 출발하여 세 국면을 거쳐 발달한다(Mayes & Zigler, 1992). 첫 번째 국면은 영아기로서 2세 미만의 영아들은 장난감 등 주위사물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키고 성공했다는 즐거움 때문에 과제를 해결하려는 지배동기를 보인다(Hausen-Corn, 1995).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수행기준에 관련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국면인 2세 경이 되면 유아들은 자신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타인의 칭찬과 비난을 예측하기 시작한다(Bullock & Lukenhaus, 1990). 세 번째 국면인 3세경에는 성취동기의 중심이 되는 능력 즉, 수행기준을 채택하고 그 기준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며 성취에는 자긍심을 실패에

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Stipek et al., 1992).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성취동기는 이미 유아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떤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더 과제 지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 성취동기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진되거나 억제되어 많은 개인차가 나타나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Shaffer, 1999).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구분하여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취동기를 포함한 관련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 변인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 자체가 보상(self-reward)이 되므로 높은 성취동기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동의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 혹은 자아개념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성취동기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되었다(김주영, 2005). 또한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성취동기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 학업적 자아개념이 가장 높은 상관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으며(김주년, 1994),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는 학생이 성공에 대한 성취기대가 높으며 어려운 과제를 선호한다는 보고가 있다(Harter, 1983). 유사하게 초등학교생의 성취동기와 자기 효능감은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으며(황경숙, 2002),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 간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보고 되었다(홍성훈, 2002). 위와 같은 결과에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유능감은 성취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능감에 대한 최근의 다차원적 접근에 근거하여 유능감의 영역별 구성 즉, 학업적, 사회적 및 운동적 유능감(서미정·김경연, 2000)의 어느 영역의 유능감이 아동의 성취동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하여 통제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더 성취지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성취동기는 내외통제소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리라 예측할 수 있다. 내외통제소재는 내재적 통제소재와 외재적 통제소재로 구분된다(Rotter, 1966). 내재적 통제소재는 개인이 행동결과에 따르는 강화의 원인을 스스로의 노력, 동기, 태도 등 내재적인 것으로 귀인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믿음이다. 반면 외재적 통제소재는 행동결과에 따르는 강화의 원인을 운,

과제 난이도, 환경 등 외재적으로 귀인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기대한다. 그러므로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높은 성취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성취동기는 내재적 통제소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예측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과 학년에 상관 없이 내재적 통제성향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성취동기가 높고(이미숙, 1994), 내적 통제신념이 높고 외적 통제신념이 낮은 학생이 성취도가 높다고 밝혀지고 있다(박영신, 1995). 또한 내적귀인성향의 아동이 외적귀인성향의 아동보다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욕구충족을 억제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이며(안귀덕, 1986), 아동의 성공에 대한 내적귀인이 성취동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주영, 2005). 그러므로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는 성취동기의 중요한 관련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아동의 유능감 및 내외통제소재의 개인적 변인과 함께 가정환경은 아동의 성취동기를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아동의 성취동기 발달과 실제적인 성취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애정, 관심, 격려 등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고 탐색하는데 있어 안전기지의 역할을 한다(Shaffer, 1999: 451-452). 자녀의 과제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무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아동은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도 안정감을 가지고 과제해결을 즐기며 이를 성취하려는 자신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Connel et al., 1994). 아동의 성취동기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제를 탐색하며 높은 성취동기를 보이는 아동은 아동의 실패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성공에 대해 칭찬하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부모를 가지며, 반면 과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낮은 성취동기를 보이는 아동은 실패에 대해 처벌하고 성공을 인정하는데 인색한 부모를 가진다고 보고 되었다(Burhans & Dweck, 1995). 그 외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 및 사랑과 관심의 정서적 지지를 보일 때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다는데 일치되고 있었다(김주영, 2005; 홍성훈, 2002).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자극이 아동의 발달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연구(김은경·유가효, 2002)도 있어 부모의 지지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도 의의 있다고 본다.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부모 지지의 중요성과 함께 최근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성공에 대한 의식과 성취동기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취지향 및 기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성취관련 의식과 행동에는 부모들의 자녀교육과 성취에 대한 강한 기대 및 애착과 이에 따른 성취 지향적 압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함이 지적되고 있다(박영신·김의철, 2003). 실제 이를 확인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취지향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중요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김의철·박영신, 1999), 부모가 자녀에 대해 성취지향적일수록 자녀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가 높다는데 일치되고 있다(손정기, 1999; 정갑순, 2002). 그러므로 한국 아동의 성취동기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는 중요한 예언변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부모변인 중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공격, 비행 등 반사회적 행동과 불안, 우울 등의 내면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권영옥·이정덕, 1999; 김선희, 2000; Harold & Conger, 1997)되고 있어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성취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할 수 있으나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적통제소재의 개인변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지와 성취지향적 양육태도 및 부부갈등의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아동의 성취동기와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은 개별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나 아동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관계 및 상대적 중요성을 검토한 연구는 없었다. 아울러 적절한 성취동기의 발달이 초등학교 아동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고 이 시기 아동의 성취동기 수준이 지적 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령기 아동의 성취동기와 관련변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하였다. 더욱이 이들 선행연구도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제한되어 한국 아동의 성취동기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포함한 관련변인의 관계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 초등학교 아동의 성취동기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는 연구(정갑순, 2002), 성취동기의 일부 하위요인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기현주, 2003)가 있어 아동의 성취동기와 관련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통합된 시각을 갖기 위해 성별접근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포함한 아동의 성취

동기에 대한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의 관계 및 이들 변인들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아동의 성취동기(개인지향, 사회지향)는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아동의 성취동기와 아동개인변인(학업적, 사회적, 운동적 유능감, 내재적 통제소재)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아동의 성취동기와 부모변인(부모지지, 부모의 성취지향, 부부갈등)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 <연구문제4>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2개 공립초등학교의 5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561명의 아동이다. 이중 5학년은 278명(49.6%), 6학년은 283명(50.4%)이며 남아 292명(52.0%), 여아 269명(48.0%)이다. 이들 아동의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41~45세가 55.8%, 36~40세가 18.5%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36~40세가 44.2%, 41~45세 39.4%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연령은 대부분 36세에서 45세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초대졸 이상 49.8%, 고졸 38.0%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 46.7%, 초대졸 이상 39.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기술직 35.7%, 자영업자 34.8%, 피고용기능인 17.3%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주부가 43.9%, 직업이 있는 어머니 55.3%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보통 67.4%, 부유한편이다 23.8%, 가난한편이다 8.7%로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성취동기 척도,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및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1) 성취동기

아동의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Yu와 Yang(1994)의 성취동기척도에서 개인지향 성취동기와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측정하는 16문항을 선정하여 구성된 정갑순(2002)의 성취동기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성취동기척도의 요인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 16문항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Scree test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2개 요인으로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법을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40이 안되는 1문항과 2개 요인에 공통적으로 .40이 넘는 1문항은 제외되었고 모두 14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첫 번째 요인은 모두 7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3.75%를 설명하였으며 사회지향 성취동기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7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9.53%를 설명하였으며 개인지향 성취동기로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요인까지 설명되는 변량은 모두 43.28%로 나타났다. 개인지향 성취동기의 문항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 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지향 성취동기에는 '부모님의 나에게 대한 기대를 실망 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지향 성취동기와 사회지향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개인지향 성취동기 .72, 사회지향 성취동기 .78, 전체 성취동기 .83으로 나타났다.

2) 개인변인

(1) 유능감

아동의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미정과 김경연(2000)의 유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유능감 5문항, 사회적 유능감 7문항, 운동적 유능감 4문항을 선정하여 모두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4점 평정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적, 사회적, 운동적 영역에서의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학업적 유능감 .86, 사회적 유능감 .82, 운동적 유능감 .90으로 나타났다.

(2) 내재적 통제소재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를 측정하기 위하여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내외통제소재척도(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를 토대로 Connel(1985)의 다차원적 통제지각척도(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Self-Control)를 참고하여 내재적 통제소재 및 외재적

통제소재를 묻는 각 7문항씩 모두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외재적 통제소재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통제성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9로 나타났다.

3) 부모변인

(1) 부모지지

아동이 지각한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척도에서 문항을 선정하여 구성된 김주영(2005)의 사회적 지지척도 중 아버지와 어머니용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를 같은 내용으로 하는 각 10문항씩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부지지 .91, 모지지 .93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영신(1989)의 10개 문항 중 7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한 정갑순(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가 평소에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 중에서 성취에 대하여 강조하는 정도에 관한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성취지향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3) 부모의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영욱과 이정덕(1999)의 부부갈등 척도 중 일부 문항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박민정(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모두 7문항이며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긍정적 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2005년 12월 7일에서 16일에 걸쳐 부산시의 사하구와 중구의 2개 공립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각 10학급씩 모두 20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자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뒤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아동에게 질문지가 배부되고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는 제외되어 최종 561부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성취동기와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의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른 성취동기

아동의 성취동기가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학년과 성별 아동의 개인지향,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난 아동의 개인지향, 사회지향 및 전체

<표 1> 학년과 성별 아동의 성취동기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취동기	학년		5학년M(SD)	6학년M(SD)	전체M(SD)
	성				
개인지향	남아		21.14(3.28)	21.67(3.17)	21.41(3.23)
	여아		22.20(3.19)	22.14(2.70)	22.17(2.96)
	전체		21.66(3.27)	21.89(2.97)	21.78(3.12)
사회지향	남아		20.50(3.89)	20.64(3.79)	20.57(3.84)
	여아		21.66(4.04)	21.23(3.71)	21.45(3.88)
	전체		21.07(4.00)	20.92(3.76)	20.99(3.88)
전체	남아		41.64(5.94)	42.30(6.13)	41.98(6.04)
	여아		43.85(6.23)	43.38(5.51)	43.62(5.88)
	전체		42.73(6.18)	42.81(5.86)	42.77(6.02)

성취동기 점수가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아동의 개인지향,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 점수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개인지향,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년의 주 효과와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와 개인변인과 부모 변인의 관계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와 개인변인간의 관계

아동의 성취동기가 학업적, 사회적, 운동적 유능감 및 내재적 통제소재의 개인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는 학업적 유능감(남아: $r=.49, p<.001$, 여아: $r=.45, p<.001$),

사회적 유능감(남아: $r=.44, p<.001$, 여아: $r=.53, p<.001$)과 운동적 유능감(남아: $r=.25, p<.001$, 여아: $r=.34, p<.001$) 및 내재적 통제소재(남아: $r=.36, p<.001$, 여아: $r=.41, p<.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표 3>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는 학업적 유능감(남아: $r=.42, p<.001$, 여아: $r=.45, p<.001$), 사회적 유능감(남아: $r=.36, p<.001$, 여아: $r=.32, p<.001$)과 운동적 유능감(남아: $r=.18, p<.01$, 여아: $r=.16, p<.01$) 및 내재적 통제소재(남아: $r=.25, p<.001$, 여아: $r=.23, p<.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표 3>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의 전체 성취동기는 학업적 유능감(남아: $r=.53, p<.001$, 여아 $r=.53, p<.001$), 사회적 유능감(남아: $r=.46, p<.001$, 여아 $r=.48, p<.001$) 및 운동적 유능감(남아: $r=.25, p<.001$, 여아 $r=.27, p<.001$) 및 내재적 통제소재(남아: $r=.35, p<.001$, 여아 $r=.35, p<.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적, 사회적, 운동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통제소재가 내재적일수록 개인지향,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성취동기 점수에 대한 학년과 성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

성취동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개인지향	학년	7.86	1	7.86	.83
	성	81.91	1	81.91	8.52**
	학년×성	11.77	1	11.77	1.23
	오차	5352.55	557	9.61	
사회지향	학년	2.80	1	2.80	.19
	성	108.29	1	108.29	7.27**
	학년×성	11.02	1	11.02	.74
	오차	8298.81	557	14.90	
전체	학년	1.28	1	1.28	.04
	성	378.57	1	378.57	10.63**
	학년×성	45.58	1	45.58	1.28
	오차	19840.68	557		

** $p<.01$

<표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와 개인변인 간의 관계

성취동기		유능감			내재적 통제소재
		학업적	사회적	운동적	
개인지향	남아	.49***	.44***	.25***	.36***
	여아	.45***	.53***	.34***	.41***
사회지향	남아	.42***	.36***	.18**	.25***
	여아	.45***	.32***	.16**	.23***
전체	남아	.53***	.46***	.25***	.35***
	여아	.53***	.48***	.27***	.35***

** $p<.01$, *** $p<.001$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와 부모변인간의 관계
아동의 성취동기가 부모지지,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 및 부부갈등의 부모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는 아버지 지지(남아: $r=.33, p<.001$, 여아: $r=.31, p<.001$), 어머니 지지(남아: $r=.34, p<.001$, 여아: $r=.31, p<.001$),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남아: $r=.41, p<.001$, 여아: $r=.34, p<.001$)와 정적상관이 부모의 부부갈등(남아: $r=-.32, p<.001$, 여아: $r=-.13, p<.05$)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표 4>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는 아버지 지지(남아: $r=.31, p<.001$, 여아: $r=.31, p<.001$), 어머니 지지(남아: $r=.29, p<.001$, 여아: $r=.34, p<.001$),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남아: $r=.40, p<.001$, 여아: $r=.49, p<.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부갈등(남아: $r=-.26, p<.001$, 여아: $r=-.26, p<.001$)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표 4>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의 전체 성취동기는 아버지 지지(남아: $r=.37, p<.001$, 여아: $r=.36, p<.001$), 어머니 지지(남아: $r=.36, p<.001$, 여아: $r=.38, p<.001$),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남아: $r=.47, p<.001$, 여아: $r=.50,$

$p<.001$)와 정적상관이 부모의 부부갈등(남아: $r=-.33, p<.001$, 여아: $r=-.24, p<.001$)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동이 부모의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또한 부모의 성취지향을 많이 지각할수록 개인지향,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개인지향,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킬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각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를 성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각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는 남아 .59, 여아 .58를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1) 남아의 성취동기에 대한 개인변인 및 부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남아의 성취동기에 대한 개인변인 및 부모변인의 상대

<표 4> 성별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와 부모변인간의 관계

성취동기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부모성취지향	부부갈등
개인지향	남아	.33***	.34***	.41***	-.32***
	여아	.31***	.31***	.34***	-.13*
사회지향	남아	.31***	.29***	.40***	-.26***
	여아	.31***	.34***	.49***	-.26***
전체	남아	.37***	.36***	.47***	-.33***
	여아	.36***	.38***	.50***	-.24***

* $p<.05$, *** $p<.001$

<표 5>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남아 \ 여아	1	2	3	4	5	6	7	8	9
1. 학년	1	-.15*	-.06	-.01	-.02	-.04	-.04	-.13*	.01
2. 학업적 유능감	.04	1	.43***	.24***	.29***	.23***	.24***	.32***	-.25***
3. 사회적 유능감	.05	.44***	1	.44***	.38***	.37***	.45***	.30***	-.20**
4. 운동적 유능감	.01	.14*	.59***	1	.14*	.28***	.25***	.19**	-.02
5. 내재적 통제소재	-.09	.37***	.44***	.22***	1	.26***	.28***	.27***	-.18**
6. 부지지	-.01	.22***	.37***	.29***	.27***	1	.58***	.30***	-.33***
7. 모지지	.09	.24***	.35***	.19**	.28***	.54***	1	.32***	-.28***
8. 부모 성취지향	-.09	.41***	.27***	.16**	.32***	.33***	.36***	1	-.14*
9. 부부갈등	-.03	-.26***	-.31***	-.20***	-.28***	-.43***	-.22***	-.22***	1

* $p<.05$, ** $p<.01$, *** $p<.001$

적 영향력을 살펴보기위해 각 변인군을 독립변인군으로 묶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표 6>에 의해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결과 1.70~2.05의 범위로 나타나 오차항간의 독립성을 가정 할 수 있었다. <표 6>에 의해 먼저 남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대하여 1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학년, 학업적, 사회적 및 운동적 유능감 및 내재적 통제소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업적 유능감($\beta=.38, p<.001$), 사회적 유능감($\beta=.16, p<.05$), 내재적 통제소재($\beta=.13,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34% 설명하였다. 남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대하여 2단계에서는 부모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부모지지,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의 부모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16,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단계에서의 개인변인인 학업적 유능감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40% 설명하여 1단계보다 6%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남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학업적 유능감($\beta=.32, p<.001$)이었으며, 그 다음 부모변인인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16,$

$p<.01$)의 순으로 남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6>에 의해 남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대하여 1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업적 유능감($\beta=.31, p<.001$), 사회적 유능감($\beta=.19,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21% 설명하였다. 남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대하여 부모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단계에서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부모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20,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유능감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29% 설명하였으며 1단계보다 8%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남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학업적 유능감($\beta=.23, p<.001$)이었으며 그 다음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20, p<.01$)의 순으로 남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6>에 의해 남아의 전체 성취동기에 대하여 1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업적 유능감($\beta=.40, p<.001$), 사회적 유능감($\beta=.20,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전체 성취동

<표 6> 남아의 성취동기에 대한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개인지향 성취동기				사회지향 성취동기				전체 성취동기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개인적 특성												
학년	.57	.09	.61	.10	.00	.00	-.04	-.01	.57	0.47	.57	.05
학업적 유능감	.40	.38***	.32	.32***	.38	.31***	.28	.23**	.78	.40***	.63	.31***
사회적 유능감	.14	.16*	.10	.12	.20	.19*	.17	.15	.340	.20**	.27	.16*
운동적 유능감	.07	.06	.03	.04	.01	.01	.02	.02	.074	.04	.05	.03
내재적 통제소재	.08	.13*	.04	.07	.04	.05	.01	.01	.121	.10	.05	.05
부모 변인												
아버지 지지			.01	.04			.03	.08			.05	.07
어머니 지지			.031	.08			.01	.02			.04	.05
부모 성취지향			.14	.16**			.21	.20*			.33	.21***
부부갈등			-.09	-.11			-.67	-.07			-.15	-.10
D-W계수	1.70		1.88		2.02		2.05		1.79		1.89	
상수	5.92		5.70		9.82		7.67		15.74		13.38	
F	26.60***		16.96***		13.94**		10.19***		29.02**		20.55**	
R ² 증가량			.06				.08				.09	
R ²	.34		.40		.21		.29		.36		.45	

D-W : Durbin-Watson 계수

* $p<.05$, ** $p<.01$, *** $p<.001$

기를 36% 설명하였다. 남아의 전체 성취동기에 대한 부모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단계에서는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부모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21,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유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전체 성취동기를 45% 설명하여 1단계보다 9%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남아의 전체 성취동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학업적 유능감($\beta=.31, p<.001$)이었으며 그 다음 부모성취지향($\beta=.21, p<.001$), 사회적 유능감($\beta=.16, p<.05$)의 순으로 남아의 전체 성취동기를 예측하였다.

2) 여아의 성취동기에 대한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여아의 성취동기에 대한 개인변인 및 부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군을 독립변인군으로 묶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표 7>에 의해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결과 1.89~2.17의 범위에 있었으므로 오차항간의 독립성을 가정 할 수 있었다. <표 7>에 의해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대해 학년, 학업적, 사회적 및 운동적 유능감 및

내재적 통제소재의 개인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유능감($\beta=.31, p<.001$), 학업적 유능감($\beta=.25, p<.001$), 내재적 통제소재($\beta=.18, p<.01$), 운동적 유능감($\beta=.13,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40% 설명하였다.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대하여 2단계에서는 부모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부모지향, 부모성취지향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의 부모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13,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단계에서의 개인변인인 사회적 유능감, 학업적 유능감과 내재적 통제소재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42% 설명하여 1단계보다 2%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사회적 유능감($\beta=.30, p<.001$)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학업적 유능감($\beta=.22, p<.001$), 내재적 통제소재($\beta=.15, p<.01$),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13, p<.05$)의 순으로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7>에 의해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대하여 1단계에서 개인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적 유능감($\beta=.37, p<.001$), 사회적 유능감($\beta=.16, p<.05$)이 유의

<표 7> 여아의 성취동기에 대한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개인지향 성취동기				사회지향 성취동기				전체 성취동기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개인적 특성												
학년	.31	.05	.31	.05	-.10	-.01	.06	.01	.20	.02	.37	.03
학업적 유능감	.25	.25***	.21	.22***	.47	.37***	.34	.27***	.72	.37***	.56	.29***
사회적 유능감	.22	.31***	.21	.30***	.15	.16*	.04	.04	.37	.26***	.25	.18**
운동적 유능감	.12	.13*	.10	.11	-.02	-.02	-.04	-.04	.10	.05	.05	.03
내재적 통제소재	.11	.18**	.09	.15**	.05	.06	-.01	-.01	.16	.13*	.08	.07
부모 변인												
아버지 지지			.03	.08			.01	.03			.04	.06
어머니 지지			-.01	-.02			.06	.15*			.06	.09
부모성취지향			.10	.13*			.37	.34***			.47	.28***
부부갈등			.05	.06			-.09	-.08			-.04	-.02
D-W계수	1.94		1.89		2.13		2.17		2.06		2.10	
상수	6.80		4.68		10.94		6.24		17.74		10.92	
F	32.32***		17.92***		15.06***		15.29***		30.30***		22.66***	
R2증가량			.02				.14				.09	
R2	.40		.42		.24		.38		.38		.47	

D-W : Durbin-Watson 계수

* $p<.05$, ** $p<.01$, *** $p<.001$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24% 설명하였다.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대하여 부모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부모 변인군을 추가한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34, p<.001$)와 어머니 지지($\beta=.15,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단계에서의 학업적 유능감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38% 설명하여 1단계보다 14%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34, p<.00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학업적 유능감($\beta=.27, p<.001$), 어머니 지지($\beta=.15, p<.05$)의 순으로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7>에 의해 여아의 전체 성취동기에 대하여 1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업적 유능감($\beta=.37, p<.001$), 사회적 유능감($\beta=.26, p<.001$), 내재적 통제소재($\beta=.13,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전체 성취동기를 38% 설명하였다. 여아의 전체 성취동기에 대하여 부모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단계에서는 1단계 회귀분석모델에 부모 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결과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28, p<.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유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47% 설명하여 여아의 전체 성취동기를 1단계보다 9%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아의 전체 성취동기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학업적 유능감($\beta=.29, p<.001$)이었으며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beta=.28, p<.001$), 사회적 유능감($\beta=.18, p<.01$)의 순으로 여아의 전체 성취동기를 예측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포함한 성취동기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의 관계 및 이들 변인들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개인지향,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경우 개인지향,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는 연구(정갑순, 2002),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난 연구(이미숙, 1994)와 일치하였으며 또한 성취동기의 일부 하위요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는 연구(기현주, 2003)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런데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남아의 성취동기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김경연, 1979; 최경숙, 1982)와는 대조적이었다. 이들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연구시기에 따라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성별 차이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전의 선행연구(김경연, 1979; 최경숙, 1982)에서는 대체로 남아의 성취동기가 여아보다 높으며, 본 연구와 최근의 선행연구(정갑순, 2002)에서는 여아의 성취동기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시기에 따라 아동의 성취동기의 성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종전에 비해 아동의 성취행동에 대한 부모나 중요 타인들의 양육행동이나 교육이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 유추된다. 즉 오늘날에는 여아도 남아 못지않게 부모나 교사 등의 중요 타인으로부터 성취적인 노력과 성취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지지 받으며 성취적인 훈련과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동의 성취동기는 여아와 남아 간에 차이가 없거나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성차이의 일관된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가 5학년과 6학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전반적인 성취동기가 5학년이 6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기현주, 2003)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의 성취동기의 5학년과 6학년 간의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연령 차이를 살펴본 연구가 미흡함을 감안할 때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취동기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아와 여아의 학업적, 사회적 및 운동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지향,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및 운동적 자아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높게 평가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의 성취동기와 자아개념의 각 하위영역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김주년, 1994),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는 학생이 성취동기가 높다는 연구(Harter, 1983)와 일치하였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개인지향과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정갑순, 2002)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일치로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성취

동기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높게 평가하는 아동은 어려운 과제에서도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취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남아와 여아의 통제소재가 내재적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년에 상관없이 내재적 통제소재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성취동기가 높다는 연구(이미숙, 1994)와 일치하였으며 아동의 성에 관계없이 내적성공귀인이 성취동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주영, 2005), 청소년의 내적통제성향과 학업성취의 정적관계를 보고한 연구(김의철·박영신, 1999; Stipek & Weisz, 1981)와도 맥락을 같이하였다. 이로써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와 성취동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노력, 의지, 인내와 같은 내재적인 소재로 귀인하는 아동이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인내와 의지 및 노력을 보임으로써 성취동기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내재적 소재의 귀인은 아동의 성취동기의 예측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및 전체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 모두 성취동기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지지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김주영, 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부모의 지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힌 연구(김의철·박영신, 1999), 자녀에게 온정적이며 수용적이고 자녀의 성취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아동이 성취동기가 높다는 보고(Glasgow et al., 1997)와 일치하였다. 이는 과제를 수행할 때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지지와 고무를 받는 아동이 새로운 과제를 선호하고 과제해결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보고(Cornel et al., 1994)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성취동기에 남아, 여아의 구분 없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해 신뢰하고 자녀의 성취를 온정적으로 지지하는 부모가 아동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에 대한 의지와 인내를 가지기 위한 안전 기지의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아동의 전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중요도는 남아와 여아의 경우 모두 학업적 유능감,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 사회적 유능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아와 여아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에는 공통적으로 학업

적 유능감과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아의 경우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사회적 유능감, 학업적 유능감, 내재적 통제소재,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 순으로 사회지향 성취동기에는 부모의 성취지향, 학업적 유능감, 어머니의 지지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업적 유능감은 아동의 전체 성취동기와 남아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에도 개인지향과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두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아개념과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상관관계가 자아개념의 다른 하위영역의 관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주년, 1994)와 일치하였다. 이는 유능감의 다른 영역보다 학업적 자아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높이 평가하는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는 5학년과 6학년의 학령기 후기 아동인 경우 성취과제가 거의 대부분 학교시험이나 학습에 관련되는 학업적인 영역이며, 학업이 이 시기 아동의 중요한 과제수행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학업적 영역의 유능감이 아동의 성취동기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리라 유추된다. 이러한 학업적 유능감과 성취동기의 밀접한 관계는 특히 남아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은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성취동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능감의 다차원적 접근으로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는 찾지 못하여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유추된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아동의 또래 관계는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보다 대인관계의 더 중요한 핵심이 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또래로부터 어떻게 인정받고 수용되는가 하는 사회적 유능감은 아동이 주어진 과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성취하려는 내적 의욕을 고무시키지 않나 유추된다.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의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여아의 경우 더 많이 나타난 결과는 사회적 유능감이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매우 중요함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없었으므로 성취동기와 유능감의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아동의 성에 따라 분석하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결과의 일반화 및 그에 대한 해석이 심도 있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운동적 유능감은 아동의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적, 사회적 유능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취과업이 대부분 학업적 영역으로 운동적 영역은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추된다.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는 남아와 여아의 전체 성취동기와 남아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에는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취 지향적 태도와 상관계수가 부모의 다른 양육태도와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연구(손정기, 1999; 정갑순, 2002)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또한 그 성취에 보다 정서적으로 관여할 때 자녀의 높은 성취동기가 형성된다는 보고(McClland, 1963)에 의해 뒷받침 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일치된 결과로써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 아동의 발달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Bell, 1979),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대하여 기대하며 신념을 보이고 성취행동에 적절한 관심을 보일 때 아동도 부모의 성취기대에 부합하는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종전에 주로 다루었던 개인지향 성취동기와 함께 한국과 유교문화권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포함하여 관련변인을 분석한 결과 여아의 경우 부모의 성취지향이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남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성취지향적 태도가 개인지향 성취동기보다 사회지향 성취동기와의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박강수, 1999; 손정기, 1999)와 일치하였으며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인지향 성취동기보다는 사회지향 성취동기와의 관계가 높다는 연구(정갑순, 2002)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취지향적 태도는 개인의 탁월성의 기준, 개인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결과 등의 개인적인 측면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보다 집단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조화, 집단 선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 사회에서는 아동의 성취동기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가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는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다른 변인보다 그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성취기대와 부모가 설정한 성취목표가 여아의 성취의욕과 의지에 가장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남아와 여아에 따라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대한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명확한 설명은 무리라고 본다.

다음 내재적 통제소재는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통제소재가 아동의 성취동기와 정적상관이 있다는 앞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함과 아울러 특히 이러한 관계는 여아의 경우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여아의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가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련성은 나타났으나 학업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및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아동의 성취동기와 정적인 상관계수가 나타난 앞의 결과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이러한 관계는 여아의 경우 남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지지가 여아의 성취동기 형성에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의 일반화와 해석은 이와 관련된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취동기는 5학년과 6학년 간에 안정적이며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 둘째, 아동의 성취동기에 유능감, 내재적 통제소재, 부모의 지지 및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아동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중요도는 남아와 여아의 경우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에는 학업적 유능감과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예측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아의 경우 개인지향 성취동기에는 사회적 유능감, 학업적 유능감, 내재적 통제소재,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 사회지향 성취동기에는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 학업적 유능감, 어머니의 지지가 중요한 예측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하여 유능감, 내재적 통제소재의 아동의 개인변인과 부모 지지와 성취지향적 양육태도 및 부부갈등의 부모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나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특히 또래관계 및 학교환경은 학령기 아동의 행동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들 변인들이 포함되어 아동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들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아동의 개인변인과 부모변인

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의 영향만 밝히고 있을 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취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의 영향이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접수일 : 2006년 07월 14일

□ 심사일 : 2006년 07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9월 19일

【참 고 문 헌】

- 권영옥 ·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2), 299-317.
- 기현주(2003). 아동의 성취동기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1979).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 유가효(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5(5), 33-43.
- 김의철 · 박영신(1999). 한국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주년(1994).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성취동기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영(2005).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내적 성공귀인의 경로모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강수(1999). 부모-자녀 관계와 중학생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1989). 한국 학생이 지각한 학업에 대한 성취귀인과 학습동기화 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신(1995). 대학학업성취집단과 성별에 따른 통제부위 신념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9(1), 57-92.
- 박영신 · 김의철(2003). 한국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 :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미정 · 김경연(2000).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1), 45-57.
- 손정기(1999). 부모-자녀 관계와 초등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일탈행동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귀덕(1986). 귀인성향, 지각학급풍토 및 주변인의 상호작용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1994). 내외통제성과 성취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갑순(2002).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숙(1982).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숙(2002). 초등학생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흔(2002). 모-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ll, R. Q.(1979). Parent, child, and reciprocal influences. *American Psychologist*, 34, 821-826.
- Bullock, M. & Lukenhaw, P.(1990). Who am I? Self-understanding in toddlers. *Merill-Palmer Quarterly*, 36, 217-238.
- Burhans, K. K. & Dweck, C. S.(1995). Helplessness in early childhood : The roll of contingent worth. *Child Development*, 67, 606-620.
- Connel, J. P.(1985).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control. *Child Development*, 56, 1018-1041.
- Connel, J. P., Spencer, M. B. & Aber, J. C.(1994). Educa-

- 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American youth :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school. *Child Development*, 65, 493-506.
- Fyans, I. J., Salili, F., Mehr, M. I. & Desai, K. A. C.(1983). A cross-cultural exploration into the meaning of achieve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61-69.
- Glasgow, K. L., Dornbusch, S. M., Troyer, I., Steinberg, I. & Ritter, P. L.(1997). Parenting style,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s. *Child Development*, 68, 507-529.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275-385.
- Harold, G. T. & Conger, R. D.(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l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2), 333-350.
- Hausen-Corn, P.(1995). Mastery motivation in toddl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ild Development*, 66, 236-248.
- Markes, H. & Kitayama, S.(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yes, L. C. & Zigler, E.(1992). An observational study of the affective concomitance of mastery in infants.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4, 659-667.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 D. Van hostrand.
- McClelland, D. C.(1963). Motivational patterns in Southeast A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inese case. *Journal of Social Issues*, 19(1), 6-19.
- Mehrabian, A.(1969). Measures of achieving tendenc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9, 445-451.
- Nowicki, S. & Strickland, B. R.(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0, 148-154.
- Shaffer, D. R.(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Brooks/Cole.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Whole No. 609.
- Stipek, D. J. V., Recehia, S. & McClintic, S.(1992). self-evaluation in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1), Serial No.226.
- Stipek, D. J. & Weisz, T. R.(1981).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1(1), 101-137.
- Yu, A. B. & Yang, K. S.(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e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 18, 239-250.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